

지역 매 아 리

김제시보건소, 지평선 축제기간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부스 운영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지난 2일 제21회 김제지평선 축제기간 동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부스 운영 및 다양한 보건사업 홍보를 위한 축제장내 퍼레이드를 실시 축제장을 찾은 많은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레드써클주간 홍보와 금연, 절주, 구강건강관리, 아토피예방사업, 비만예방 및 영양플러스 사업 그리고 '일상이 운동이다!' 라는 캐치 프레이드로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사업홍보까지 별گونه 쌍용마을을 시작으로 많은 관광객들의 동참 속에 즐거운 행진의 시간을 보냈다.

특히 축제 기간에 답변이 없는 축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금연등록은 흡연자 본인보다 가족, 자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으로 많은 흡연자의 금연시도로 이어졌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퍼레이드를 통해 흡연자들이 '사람이 있는 곳은 금연입니다!' 라는 문구를 길게 새겨 쾌적하고 상쾌한 축제장이 담배연기 때문에 눈살 찌푸리는일 없이 즐겁고 유익한 축제 누리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2019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서 장려상

완주군이 2019년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난 2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발표대회는 전라북도가 주관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회다.

완주군은 '납기 전 징수를 활용한 징수불능 체납세 확보'라는 주제로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참신성을 인정받았다.

납기전 징수를 활용한 징수불능 체납세 확보는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 물건에 대해 법에서 정해진 납부 기한보다 조기에 재산세를 부과해 최우선으로 배당금을 확보,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다. 이번 발표회는 도내 14개 시군의 우수사례를 사전 접수받아,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발된 우수과제에 대한 사례발표로 내용전달성, 청중대응력, 청중관심도, 태도 및 준비의 4개 항목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김은중 재정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세원 발굴 및 다양한 체납세 확보 시책을 강구해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2019년도 상반기 평가에서도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완주군, 성장률 전북 1위

5년간 GRDP 성장률 13.4%

전국 228개 기초단체 중 24위 마크

지역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전북 내 독보적 1위를 달리는 완주군의 비결이 세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완주군은 지난 2011년 3조296억원이었던 지역총생산(GRDP)이 2016년엔 4조6,584억원으로 급증,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13.4%를 기록하며 전북 14개 시군 중 1위에 랭크됐다.

완주군의 GRDP 증가율은 2위(6.8%)와 3위(6.7%)의 것과 비교할 때 2배에 육박, 후발주자와의 격차를 벌리면서 '완주의 금빛 질주'라는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

GRDP는 한 지역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최종 수렴하는 종합 경제지표로, 해당지역의 현재 경제력과 향후 경쟁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완주군은 전국 228개 기초단체 순

위로 넓혀 봐도 24위에 오르는 등 전북에서 유일하게 상위 30위권 안에 포함됐다. 도내 다른 기초단체의 전국 순위는 92위에서 224위까지 넓게 분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완주군은 특히 전년도와 비교한 순위 변경에서도 31위에서 24위로 7계단이나 올라서는 등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15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내 14개 기초단체 중 전국 순위가 오른 곳은 완주군을 포함한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완주군의 최근 5년 성장률은 전년 5년(2010~2015년)의 평균 증가율(12.2%)과 비교해도 1.3% 포인트 더 오른 것이어서, 국내 경쟁력은 물론 자체 성장 기반과 잠재력을 확충해 가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줬다.

특히, 국내외 경기침체 상황에도 완주군민은 최근 5년간 전북에서 성장률 1위라는 자리를 확고히 지키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민선6기 들어 △테크노밸리 1 단지를 조기 완료시키며, 2016년 기업입주가 크게 증가한 요인이 있다.

이를 통해 산단 집적화와 기업유치 활성화로 고용창출을 선도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완주형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 데다 △로컬푸드 확대와 귀농귀촌 활성화 등 잘사는 농업농촌 정책을 강화하는 등 '프리플 경제기반'을 갖춘 정책이 실효를 거뒀기 때문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성일 군수가 취임한 2014년 이후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이란 두 축을 세우고 대형사업 추진과 사회적기업 육성, 로컬푸드 운영 활성화 등 복지와 성장의 두 토끼잡이에 적극 나선 것이 성장률 제고 등 선순환 구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완주군은 "현재 테크노밸리 2단지(64만평, 3천500억 원 투입),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10만평), 삼봉웰빙시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복합행정타운 조성 등 약 1조2천억 원 가량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 사업이 마무리되면 향후 성장률도 꾸준히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는 지난 2일 관내 어르신 700여명과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실내체육관에서 대한노인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 성황리

김제시,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 및 경로효친 사상 계승

김제시(시장 박준배)에서는 지난 2일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계승하기 위해 김제실내체육관에서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회장 이종선) 주관으로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관내 어르신 700여명과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하여 온주현 김제시의회의장, 황영석, 나인권 전북도의회 의원 등 많은 내빈들이 어르신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특히 기념행사에서는 고령화사회에 발맞추어 모범적인 노인상을 정립하고 전통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시키며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모범노인 12명, 노인복지기여자 6명을 수상하여 눈길을 끌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 날 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헌신해 오셨으며 오늘의 김제를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하신 어르신들께 감사의 표시로 한상 한결같이 어르신 결에서 힘이 되어주는 정의로운 김제를 만들며 그동안의 시름을 잊고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웃고 즐기는 흥겨운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의 날'은 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시키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며, 지난 1991년 UN에서 매년 10월 1일을 정립하고 전통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시키며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모범노인 12명, 노인복지기여자 6명을 수상하여 눈길을 끌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새만금 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 대비

시, '시민운동장-만경삼거리' 교통통제 실시... 10월 9일 개최

김제시와 김제시 체육회는 10월 9일에 개최되는 제18회 김제 새만금 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와 관련하여 마라톤 구간(시민운동장 ↔ 만경삼거리)에 대해 교통 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18회 김제새만금 지평선 전국마라톤 대회는 9월 초까지 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난해 보다 100여명이 늘어난 4,145명이 참여해 열띤 레이스를 갖는다.

김제시-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업무협약 체결

김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현영삼)는 지난 2일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관 간 상호협력력을 통해 학교 밖에서 미래를 찾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건강증진 관련

마라톤 대회는 시민운동장에서 08:20까지 집결해 준비운동 등을 가진 후 하프코스(09:00출발), 10km(09:10출발), 5km 건강코스(09:20출발) 등 순차적으로 출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행사가 진행되는 구간은 10월 9일 오전 8:00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시민운동장 ↔ 김제 온천사거리 ↔ 서암사거리 ↔ 후석삼거리 ↔ 서김제 IC ↔ 만경삼거리(삼북주유

소) 구간이 각각 통제 된다. 마라톤 행사당일 교통경찰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이 교차로와 도로변에 배치되어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제시와 체육회에서는 "우선 마라톤 행사로 시민들과 김제시 방문객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행사구간 교통통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회도로를 미리알고 차량을 운행해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성숙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고 당부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의료비 지원, 공동사례관리, 집단 프로그램 운영,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관련문제에 적극적인 예방 프로그램 및 치료 개입을 실시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동시에 각 기관별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 부량면 이부군 노인회장, 모범노인 표창 수상

김제시 부량면(면장 임영하)은 지난 2일 김제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3회 김제시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서도 모범노인 부문 이부군 부량면 노인회장이 모범노인 표창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가 주관한 것으로, 박준배 김제시장, 김중회 국회의원, 온주현 김제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시·도위원과 지역 어르신 및 노인복지기관 종사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부군 회장은 수년간 부량면 대성마을 경로당 회장직을 맡아 수행해 오면서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섰으며 표창함으로써 지역 어르신들의 권익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왔으며 존경

받는 어르신상 확립으로 주위의 귀감이 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부군 회장은 "앞으로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가족과 같이 보살피며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칭송받는 어르신 상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영하 부량면장은 "젊은이는 어르신을 공경하고, 어르신은 젊은이에 본을 보이며 세대가 서로 조화와 배려로 모두가 행복한 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는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희생과 봉사로 이웃과 사회에 헌신 봉사하며 노인공경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노고를 위로 격려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